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한국조선해양, 6,000억원 규모 LNG운반선·VLCC 등 4척 수주

한국조선해양은 유럽과 아시아, 버마다 선사와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2척과 초대형 원유운반선(VLCC)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함. VLCC 2척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하며, LNG선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척씩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. (디지털타임스)

### 두산중공업, 1천억 규모 호주 ESS 수주

두산중공업은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신재생에너지 민자발전사인 뷔나에너지로부터 호주 퀸즈랜드주 최대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을 수주했다고 밝힘.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의 ESS 수주 가운데 최대 규모로 총 사업비는 1,000억원이라고 보도됨. 호주 ESS시장(누적 설치 용량)은 2020년 1.9GWh 규모에서 2025년 18.7GWh, 2030년 40GWh로 10년간 2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됨. (파이낸셜뉴스)

### 한국항공우주산업, 제트기 동체구조물 1억3천만 달러 규모 수주

한국항공우주산업은 15일 이스라엘 IAI(Israel Aerospace Industries LTD.)로부터 G280 동체 물량을 새로 수주했다고 밝힘. 수주액은 1억 3,120만달러로 2030년까지 동체를 납품한다고 보도됨. (비즈니스포스트)

### Shell signs up shipowner trio to four more LNG newbuildings

슈퍼 메이저 Shell사에 대한 용선 목적으로 팬오션, Knutsen OAS Shipping, JP Morgan 등 3개의 선주들이 4척의 LNG선을 확정발주하고 추가로 4척의 옵션분을 확보했다고 보도됨. 팬오션은 현대중공업과 17.4만CBM급 LNG선 2척에 대해 확정발주하고 추가로 1척이상의 옵션분도 계약을 했다고 알려짐. (TradeWinds)

### LNG 운임 가파르게 상승

LNG선이 시장에서 꼬리를 감추면서 용선주들이 LNG선을 급히 구하고 있다고 보도됨. 신형 Gas-injection LNG선의 스팟 운임은 대서양 수역의 경우 일일 15만달러, 태평양수역은 일일 13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. Affinity Shipping에 따르면 2~3일 내 용선이 가능한 선박은 2~3척밖에 없을 정도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한진중공업 인수전, 3파전으로

한진중공업 인수전이 SM상선, KDBI, 한국토지신탁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고 보도됨. 한진중공업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DB산업 은행은 한진중공업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동부건설 컨소시엄, SM상선 컨소시엄, 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등 총 3곳이라고 밝힘. (선박뉴스)